

죽음,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노래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 한○○ (38/F)
- 종교 : 천주교
- 입원기간 : 2012.03.28. ~ 2012.04.26.
- 진단명 : known Lt breast ca. - s/p MRM, RTx
 - brain mets - s/p resection / recurr - RTx
 - spinal mets - s/p RTx, CTx

<환자상태>

- 주증상 : Poor oral intake, General weakness, Headache
- 현병력 : 미국 이민생활중 2007년 유방암 진단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시행 받았던 자로, 이후 뇌전이도 발견되어 뇌수술 및 방사선 치료 받고 미국에서 가정호스피스 치료도 받던 중 귀국하여 2011년 11월 국립의료원에서 진료 중 뇌전이, 척수전이가 추가로 발견되어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받던 중,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hospice care를 위해 본원을 내원함.

진료 부분

<미국에서의 진료>

#1. Left breast cancer(Triple negative, 2007.05.)

at Shands Jacksonville

- s/p neoadjuvant chemo(TAC) x5
- s/p Lt MRM(γT1aNO, 2007.10.30.) → xRT
- s/p brain mets(2010.06.) → resection
- s/p multiple brain mets(2010.12.) → RT (~ 2010.12.27.)
- 2011.01.07. NCC refered (γT3N2), brain mets, in NED

- d/t LMS with Leptomeningeal mass formation on lower lumbar, dural sac

- s/p RTx(2011.11.10. ~ 2011.11.23.)
- s/p Port insertion(2011.11.24.)
- s/p IT-triple 2/week(2011.11.28. ~ 2012.01.02.)
- Brain MRI 2012.01. ; braine, C2, and T6 level mets increased
- s/p xRT to brain lesion and C2 mass 10Ffx (2012.01)
- s/p Xeloda 1150mg bid(2012.01.06. ~ 2012.01.10) hold d/t N/V
- s/p cortisolu(1T) 2012.01.20.
- => Chemo / IT OFF d/t Pt's will

<국립암센터에서의 진료>

#2. New onset LBP with both leg paresthesia (2011.11.) at NCC

<그외 증상들>

#3. HA, nausea r/o brain mets aggravation

- dexta 2mg bid 증량 후 증상 호전되어 dexta 조절하여 복용하기로 함.
- 2012.03.08. 국립암센터에서 퇴원한 이후 요양 병원, 집에서 지내다가 식이를 더욱 못하고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2012.03.26. 처음 본원 외래에서 보호자 면담 후 2012.03.28.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으로 입원함.
- 구급차 침대에서 침상으로 옮기는 등 조금만 흔들려도 두통 생긴다고 표현함.
- 하지가 마비된 채 침상에 누워만 계신 상태로 절대적인 보호자 간병이 필요하여 배우자 및 시어머니가 번갈아 간병하심.
- 내원 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로 처방을 변경하며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Oxycotin CR 10mg po. bid / Celebrex 200mg 1c bid / prn) IR-codon 5mg tab
=> Fentanyl patch 12.5mcg/hr+prn)
 hydromorphone
- Dexta 2mg po, bid => Dexta 2.5mg (1/2A) iv q 12hr
- Famotidine / Pantoprazole => Ranitidine 100mg iv q 12hr
- MGOT / prn) Duphalac => prn) Lactulose
- Lab 상으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

두통 등에 대하여 hydromorphone 0.3mg iv 등 시행하며 통증과 함께 불안한 증세 등 보이고 있어 haloperidol 등 같이 사용하며 증상조절 시행함.

<경과기록>

- 입원 일주일여 지나며, 두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불안감 등으로 간간히 iv fluid self remove 하기도 하여, Fentanyl patch도 증량(12.5 → 25mcg/hr)하고, 그외 po. 약제로 조절하려 하였으나 증상조절 잘 되지 않아, iv fluid 유지하며 경과관찰함. (Dexta 2.5mg iv bid => 5mg iv bid / Haloperidol 15mg fluid mix / Diazepam 5mg iv HS)
- 소변도 잘 안나오기도 하여 간간히 nelaton urination 시행하기도 함.
- 2주가 지나면서는 컨디션이 더욱 떨어지기 시작하고, 두통 이외에도 불안, 혼돈 증세가 점차 증가함. 이전까지는 기저구에 소변을 보았으나, foley cath insertion 시행함.
- 입원 3주째부터는 점차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웅얼거리는 소리만 내고, 점차 가래도 증가하고, 소변도 점차 지저분해지는 등 염증소견도 있어 항생제 치료도 시행하며 경과를 관찰함.
- 한달 가량 완화적 치료를 받으며 가료받다가 30병일째인 2012.04.26. 오후 5시 임종하여, 연고지 장례식장으로 모심.



간호 부분

<간호진단 1. 비효율적인 가족기능>

환자 상태, 사정:

- ECOG 3점 - mental : drowsy, confusion
- 식사 : S.O.W 상태로 간헐적으로 미음, 물 종류 조금씩 드시는 정도로 영양제 투여중
- 환자 특성 : “가지마~”, “화장실 갈래, 아니야 안갈래”, “싫어 기저귀 안해”
- ① 이민생활 중 힘든 생활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임.
- ② 자녀가 어린관계로(딸 : 13세) 환자의 정확한 상태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행동 보임.
- 남편의 특성 : “미안해, 불쌍해, 사랑해”
“가만히 좀 있어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 자꾸 이러면 나 가버린다”
- ① 환자가 남편에게 의존도가 높음을 알기에 현실적으로 간병함.
- ② 부인을 사랑하며 암에 걸린 것에 대하여 불쌍하게 생각하나 부인의 발병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접어야 하며 빚을 지게 됐다는 것에 화가 남.
- ③ 양가감정이 있는 상태임.
- 딸의 특성 : “엄마 조금 있으면 다 나올꺼야 그럼 다음달에 같이 다시 미국갈꺼예요”
“엄마 옆에 못있겠어요 무서워요”
- ① 발병에 관해서는 알고있는 상태이나 상태저하 및 전이여부에 관해서는 모름.
- ② 통증으로 인한 표현을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받아들임.

계획 및 수행:

- 어린자녀에게 미술요법 적용해 엄마의 현 상태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한다.
- 성가 들려주기, 기도해 주기 : 봉사자
-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가족교육

- rapport 형성을 위하여 가족과 환자와 많은 대화와 관심을 보인다.

평가:

- 가족과 환자 모두 의료진과 봉사자등 호스피스 팀에게 고마움을 표현함.
- 남편 : 의료진에게 마음을 열고 힘든 점에 관하여 이야기 하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봄.
- 딸 : 미술요법, 상담등을 모두 거부하며 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엄마의 임종이 가까워 졌다고 느낀 뒤 “엄마 미안해 사랑해, 좋은곳에서 아프지 말아” 라고 인사하는 등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임.
- 환자 임종 시 모든 가족이 임종을 지키며 기도해 드림 환자 본인도 가족들과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함. 가족들과 함께 임종기도 드림.

<간호진단 2 : 통증>

환자 상태:

- 환자 특성 :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왜 자꾸 아픈곳이 여러군데야?”
- NRS : 5~7점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계획 및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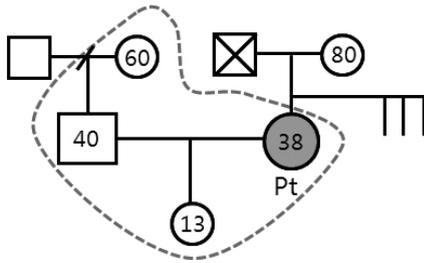
- 뇌전이로 인한 두통으로 예상되며 dexame-tasone 5mg bid 유지중으로 두통 감소함.
- 전신통증 조절위해 fentanyl patch 25mcg 사용 중.
- 통증시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

평가:

- “고마워요. 이제 아프지 않아서 살 것 같아요.” 통증 감소됨을 말로 표현하며 통증을 느끼는 횟수도 줄었다고 함.

사회복지 부분

<가계도>



<개인력>

- 직업 : 주부 · 결혼 : 기혼
- 종교 : 가톨릭(리디아)
- 성격 : 착하고 밝고 씩씩함. 가족에게 헌신적임
- 질환에 대한 환자의 인식 : 수용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 인식 있으나 양가감정 느낌

<가족력>

- 어머니 : 80세, 충남 광천 거주. 환자의 발병사실은 알고 있으나 회피함
- 시모 : 60세, 일용직노동, 환자에 대한 사랑 각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손녀양육, 진료비 마련, 소진에 대한 어려움 있음
- 남편 : 40세, 미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권유로 이민결정. 처음 1년간은 일용직 노동을 하였으나 이후 빌딩관리업체 매니저로 근무하여 안정된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병이 발병하여 환자에 대한 원망과 안쓰러움이 공존(양가감정)
- 딸 : 13세, 초재. 명랑 쾌활한 성격으로 엄마의 투병과정을 지켜보았으나 회피하거나 부정함. 나이에 비해 조숙한 모습보임.

<경제력>

- 주소득원 : 시모, 월 100여만원
- 주거 : 시모댁에 무상거주

- 부채 : 미국에서의 의료비 30만불(한화 4억여원), 사채 5000만원

<퇴원 후 계획>

- 임종계획 : 한국에서 화장 후 납골 예정.
- 생계 : 남편이 한국에서 취업하여 딸과 함께 지낼 예정.

사정

- 의료비 마련의 어려움.
- 주간병자인 남편이 우울하고 소진되어 있음.
- 딸이 환자의 질병을 부정하며 지나치게 밝은 모습보임.

개입

- 공적부조 수혜가 어려워 원내 후원금 연계.
- 남편에게 지속적인 지지 및 격려면담.
- 지속적인 면담으로 딸의 심리상태 파악.

결과

- 원내 호스피스 박철 후원금 100만원 지원.
- 환자와의 사별에 대해 비교적 잘 준비하며 지속적인 지지면담으로 우울감과 소진 감소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계획함.
- 가족들의 예상과는 달리 딸은 환자가 호전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며 밝은 모습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어 자연스럽게 감정표현을 유도하며 환자의 사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움.

종결

- 유가족 위로, 호스피스 팀원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 환자 임종 후 병동 방문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의지와 희망에 대해 표현하여 격려함.

원목(영적) 부분

한○○은 38세 여자 유방암 환자로 미국 이민생활 중에 발병하여 수술과 항암치료 받고 미국에서 가정 호스피스 치료 받다가 귀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받다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혼돈증상을 보여 전원오신 분이다.

환자는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신 분으로, 방문할 때마다 밝게 웃으시며 맞이해 주셨다. 환자분은 리더아라는 세례명을 가진 신자로 중계본동 본당신부님께 병자성사를 받고 오신 상태였다. 방문 때마다 기도해 드리면 편안한 얼굴로 잠심하는 모습 보였고, 기도 끝에 늘 “감사합니다. 또 오실거죠”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남편은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처음 1~2년은 일용직노동으로 힘들었지만, 빌딩관리업체 매니저로 채용되어 무척 기뻐하셨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나 그 즈음에 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어 그 기쁨도 잠깐이었고, 힘든 나날이 시작 되었다고 말하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환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원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부인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남편은 부인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젊은 부부의 애뜻함에 저절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였다.

남편은 면담 중에 “우린 정말 행복한 부부였어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부인의 간호에 지쳐가고 있는 남편을 쉬게 해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환자를 부탁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오게 해드리거나, 경당에서 실컷 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면담 다음 날 남편은 “수녀님 배려 덕분에 몸과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수녀님, 우리 며느리 너무 불쌍해서 어찌죠?

너무 젊어서 마음이 아파요. 착하게 살았는데 하느님도 무심하지…….” 하시며 눈물 짓는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며 말씀드렸다.

“지금 어떤 위로도 도움이 안 될 정도로 힘드실거예요. 저도 며느님께 일어나는 일이 하느님 뜻이라고 하기에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며느님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힘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눈물을 보이신 후에 “네, 인간이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습니까. 며느리가 그간 가톨릭을 믿었으니 하느님께 맞기고, 저는 옆에서 도와야지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였다.

환자는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딸을 떠나기가 아쉬운지 “수녀님, 저는 남편과 딸과 더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미국에서 좋았는데……. 하느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했다.

이에 환자와 가족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다.

점점 증상이 악화되면서 환자가 가족들과의 헤어짐을 힘들어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남편, 딸과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다.



자원봉사 부분

병실에서 젊은 환자를 처음 만날 때면 먼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더구나 외모가 준수한 환자일 때는 싱싱한 장미꽃의 목이 부러진 것을 발견할 때처럼 더욱 마음이 짠해진다.

리디아씨를 처음 만난 날이 그랬다.

늘씬한 키에 이목구비가 선명한 그녀를 바로 쳐다 볼 수가 없어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 하면서 곁눈으로만 리디아씨를 잠깐씩 훑쳐 볼 뿐이었다.

두 번째 병실에 들어간 날에는 세례명을 물으면 서 접근을 했다.

세례 받을 때 수녀님이 생일에 맞추어 정해진 이름인데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던 세례명이라고 하며 어떤 성녀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에 바로 사도의 선교 사업을 도운 이야기와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귀부인이었다고 하니 생긋 웃으며 “귀부인이라니 다행이네요”라고 한다. 성경을 가져다 그 부분을 읽어 주었지만 더 이상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결혼 후에 세종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옆에 있던 남편이 대신 해주었다.

뇌에 전이가 되어서인지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통증이 없을 때는 마치 잠깐 병실에 놀러 온 사람처럼 다른 환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입을 쭉긋하고 장난스런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무슨 일이라는 듯 눈으로 묻고는 하였다.

천성이 밝고 인정이 많은 사람인지 다리 마사지를 해주면 시원해 하면서도 힘드니 그만 하라고 하고, 손을 잡아주면 마주 잡으면서 손등도 쓰다듬고 토닥거리 주기도 한다.

시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시어머님도 머리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모습이 마치 모녀 같이 다정해 보였는데, 친정 식구들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이 좀 의아했다.

남편이 체위를 변경해주면서 몸을 잘못 만졌는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손으로 마구 때리기에 착한 신랑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니 금방 순진한 어린이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성격이 까칠한데 남편의 착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붙잡았다고 한다.

표정이 무척 어둡고 말이 없던 남편도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환자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봉사자를 본 뒤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 들어가면 인사도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도 했다.

병실에 머무는 동안 환의 대신 평상복을 입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리디아씨는 점점 어린이가 같이 되어서 간단한 말 외에는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미국 이민생활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남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막막할지를 생각하면 이 젊은 부부가 너무 애처로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환자가 점차 기력이 없어지고 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아서 가족이 원할 때 목욕도 시켜드리지 못하였고 그냥 기도만 조용히 해드리는 것밖에는 달리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한 뒤부터 의식을 완전히 놓았고 친정 가족들이 도착하던 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는 뒷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면 정신이 명료할 때 친정 가족들과 만나고 맺힌 것을 풀도록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오래오래 남는다.

그렇게 리디아씨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